

# 내적 분열 잘 다스려야 올바른 수행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가가 막혀

## ㉔ 가짜손오공과 시비 벌이는 손오공

이번에는 서유기의 독특한 '손오공 축출사건'을 좀 제대로 다루어보기로 했죠? 단순한 자기의 분열과는 다른, 서유기의 자기 분열사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현장법사는 자비심은 충만하지만 사태의 진상을 보는 눈은 부족하군요. 요괴가 분장하고 나온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 손오공은 요괴의 간사한 수법은 한 눈에 꿰뚫어 보지만 자비심은 부족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는군요. 손오공의 성급한 손은 단매에 요괴를 때려죽여버리고, 눈 밝지 못한 현장법사는 이를 용서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손오공 머리테 조이는 긴고주를 막 외워대고... 이런 일이 세 번 벌어지고 결국 요괴를 잡지만 손오공이 쫓겨나지요? 거기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손오공 축출을 부추킨 게 누구인가요?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도 요괴의 간사한 수작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습니다. 만일 요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아무리 저팔계가 욕심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손오공을 모함하여 쫓아내지는 안았을 겁니다. 요괴라는 걸 몰라봤는데, 손오공은 요괴라고 때려죽이니... 가요옹~. 그렇지만 역시 먹을 것을 놓치고, 또 마음 쓸려서 음식까지 품었던 야가씨를 때려죽인데 대한 성내 마음이 "혹시 정말 요괴일지도 몰라"하는 의심을 털어 버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증폭되면서 현장법사를 부추기게 되는 거지요. "저 재주 좋은 체 하는 사형이 꾸민 일입니다. 아가씨부터 죽여서 결국 그 부모까지 죽이고는, 마치 요괴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원승이 사형 재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죽여 놓고 요괴로 꾸미는 건 일도 아네요." 이렇게 부추겨다니 가짜손오공의 잔인한 처사에 화가 나 있던 현장법사가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 부르지 않겠다 하는 각서까지 쓰고선 손오공을 파문해 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아에 욕망이 부추겨다니 결국 지혜의 충고를 저버리고 만 결과라 할까요? 여기서 현장법사는 자아의 주체성에 해당하고 저팔계는 욕망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손오공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지혜에 해당시킬 수 있구요. 물론 온전하지 않으니깐 반쯤은 어리석음이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셋 중에서는 제일 눈이 밝은 게 손오공이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은 옳고 현장법사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오공 역시 아직 깨닫지 못한 분별지에 해당하기에, 올바른 방향을 굴리는 온전한 지혜라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지혜라면 현장법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방편을 굴렸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단매에 때려죽이는 것은 역시 잘못이지요. 아직 어리석은 자아라면 차분하게 설득을 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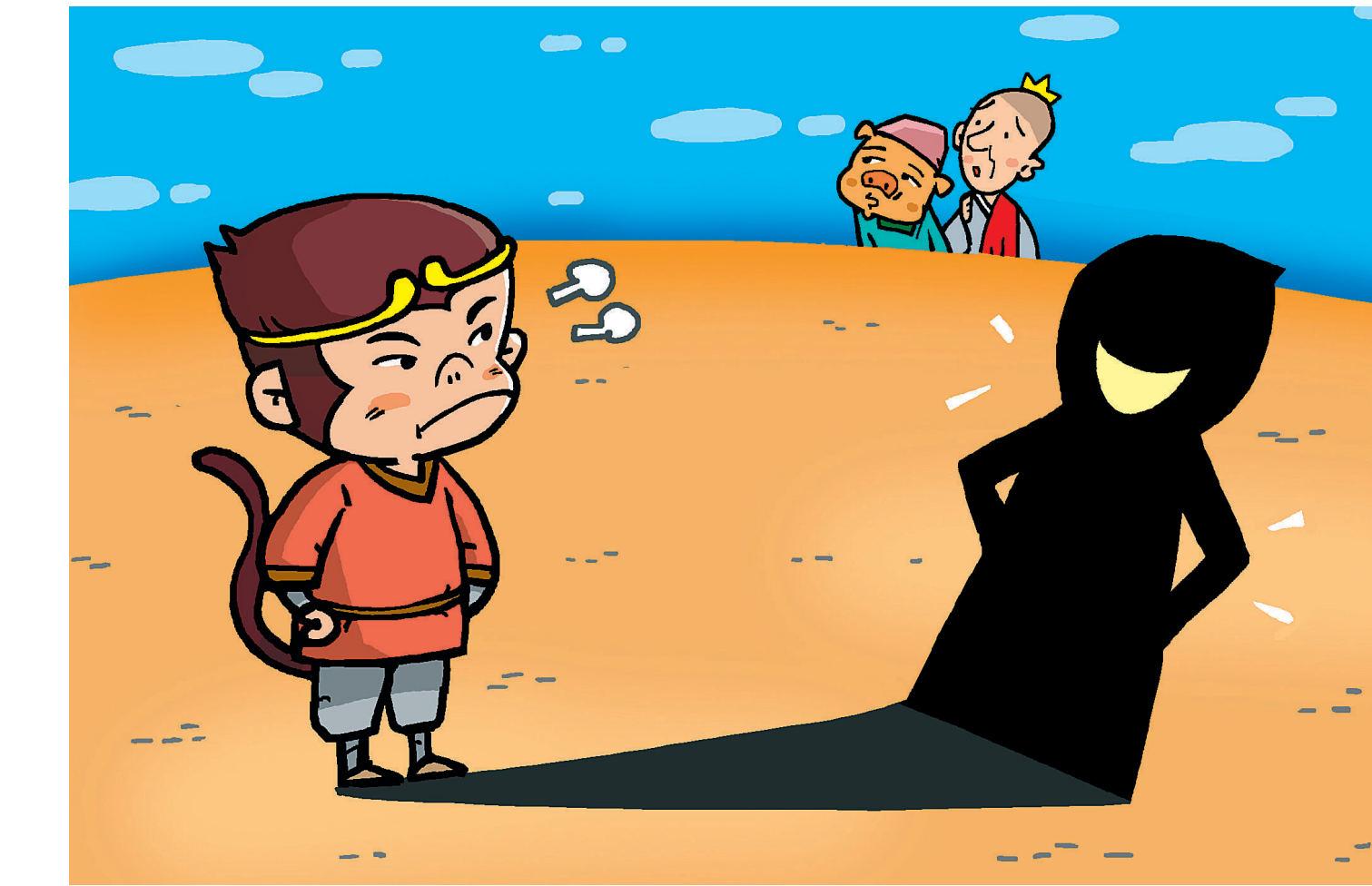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편을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속의 자기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원을 세움으로써 욕망의 힘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이런 방법을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체할 욕망이나 서원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우선은 욕망을 잘 설득해서 달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저항 없이 욕망의 힘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잠재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제가 눈 밝다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단매에 때려죽인 것은 역시 성급한 행동이며, 올바른 지혜방편을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장법사도 손오공도 모두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수행과정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히 서로를 달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잘못을 불러일으키는군요. 그래서 결국 최악의 사태! 손오공을 축출하는 사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뜨지 못한 자아, 설익은 지혜, 거기에 풍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는 욕망이 끼어들니 속으로 파탄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도 욕망을 제압할 수 있으면 좀 나은 터인데, 일이 그렇게 되나요? 설익은 지혜의 충고가 무시되고, 아니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네 말은 전혀 안들을 거야!" 정도가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그 뒤가 어떻게요? 훗날 보이지요? 아마 몇 길을 못가서 큰 곤란을 당할게 뻔합니다. 저팔계와 사오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난관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때 가서 손오공을 어찌 불러 오려는지, 아니 과연 손오공이 순수히 다시 돌아와 도와주려는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그

### 현장법사와 손오공 갈등 생겨 가짜 손오공 나타나 다툼 발생 서원 없다면 욕망의 힘 줄여야

래도 성질머리는 더럽지만 현장법사를 향한 순수한 보은의 마음을 지닌 손오공이니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속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발보리심-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한 때의 문제로 잠시 방향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장법사가 참으로 둔한 구석도 많고 어떤 때는 갑갑할 정도로 원칙만 고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구도의 열정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장법사가 가진 위대한 힘이지요.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과 구도심! 이것이 바로 현장법사의 상징이거든요. 한 때는 그에 뒤따라야 할 지혜와 방편을 부족으로 장애를 만나기도 하지만, 근본에 대한 지향이 확실하면 반드시 제 길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확고한 믿음과 열정에는 불보살의 개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지요.

각설하고, 손오공이 축출되는 사태는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유기가 한참 더 진행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축출사태가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태인데 뒤의 사태에는 여기에 없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때가면 지금 이야기 다 잊으실 지도 모르니... 하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 다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태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

도 좋을 것 같네요.

사태의 시작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잔인하게 산적을 때려죽이고 현장법사가 그 잔인함을 꾸짖는데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산적을 때려죽이자 현장법사가 매우 꾸짖고는 무덤을 써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축문을 읽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죽인 것은 손오공, 손가 놈이니 염라대왕 앞에 가서 고소할 때는 저를 고소하지 말고 손오공을 고소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그것을 받아쳐서 "이 뉘집 놈의 강도 들어... 옥황상제는 나와 아는 사이고... 염라대왕은 내 절개이며 서방세계의 신들은 다 나와 친한 사이이니 어디 맘대로 가서 고발해봐라!"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현장법사는 이러한 악담에 프악해하고, 손오공은 손오공 나름대로 너무 자기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섭섭해 하게 됩니다. 이번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현장법사와 손오공 좀 더 큰 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이 겉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볼까요? 산적을 죽이고 조금 더 가서 머물 집을 찾았는데, 주인은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은 산적의 일당이였지요. 그 아들과 산적 일당들이 그 집에 찾아들어 왔다가, 현장법사 일행이 자기 무리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는 복수할 모의를 합니다. 그걸 알고는 달아나는 데 겁없이 뒤쫓아 오네요. 무서워 달아난 것이 아닌데... 결국 손오공에게 그 집 아들이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그 뒤의 결과는 듣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출 때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져요. 손오

공이 요괴도 아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현장법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 그것이 그런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뿌리깊은 갈등이 일어난 셈이고, 그 갈등의 결과도 그리 쉽게 매워질 수 없게 됩니다. 손오공이 현장법사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아주 고약한 사태가 벌어지지요.

어떤 고약한 사태냐구요? 가짜 손오공이 등장하는 고약한 사태입니다. 완전히 손오공과 똑같아요. 보살님들도 신선들도 구별 못해요! 손오공 머리테 조여대는 긴고주를 외우면 두 손오공이 함께 때굴때굴 굴러요. 그렇게 진짜 뺨치는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 현장법사에게 행패를 부리네요. "꼭 너만 불경 가지러 인도 가라는 법이 있느냐. 훌륭한 내가 네 대신 불경 가져와서 모든 영광 누리겠다!" 꼭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언을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현장법사에게 전해진 금란가사 등을 강탈해 가버리지요. 급하게 관세음보살님 곁에 있던 손오공을 찾아와서 사정사정, 손오공도 자기 가짜가 나타났더니 발근해서 달려오고...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싸움 실력도 똑같아 도저히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거지요. 진짜와 가짜를 가릴 길도 없고, 싸움으로도 판별이 안 되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까지 싸우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듣던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네요. "저것 보아라.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오고 있구나!"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 이런 시구절을 읊조리고 있네요. "사람에게 두 마음 있으면 재앙이 생기기나..."

자, 여러번 가짜 손오공 사태가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지지요? 서유기에는 부처님에 의해 가짜 손오공의 정체가 여섯 귀를 가진 미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잡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나와 내가 쫓겨지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투는 내적인 분열이라는 큰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나간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도고마장(道高魔長)! 도가 높아지면 장애는 더욱 커진다는 말이겠지요. "도가 한자 높아지면 마(魔)는 한 길을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정신력도 강해지지요. 그 강해진 정신력이 조그만 틈을 비집고 장애로 등장합니다. 쉬운 싸움이 될 리 없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조심, 자기를 잘 달래가면서 가야 됩니까요? 자기와 자기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가짜 자기도 나타나는 거요. 그러니까 앞에서 삼매선생이 한 이야기, "자기와 친구되어 나가기"의 소중함이 새록새록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구 별것도 아닌 이야기 하나 해 놓고 집념도 강하게 계속 선전을 해낸다고요? 애고고, 삼매선생은 언제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자신을 잘 달래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 끝냅니다.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과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제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풀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정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정경연교수, 김민준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b>대상</b>	명리학 초중급자, 헌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b>입학식</b>	4월 7일(목) 18:00 ~ 미래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b>등록금</b>	240만원
<b>일정</b>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목(木)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b>지원방법</b>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b>자격증</b>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b>특전</b>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동국대